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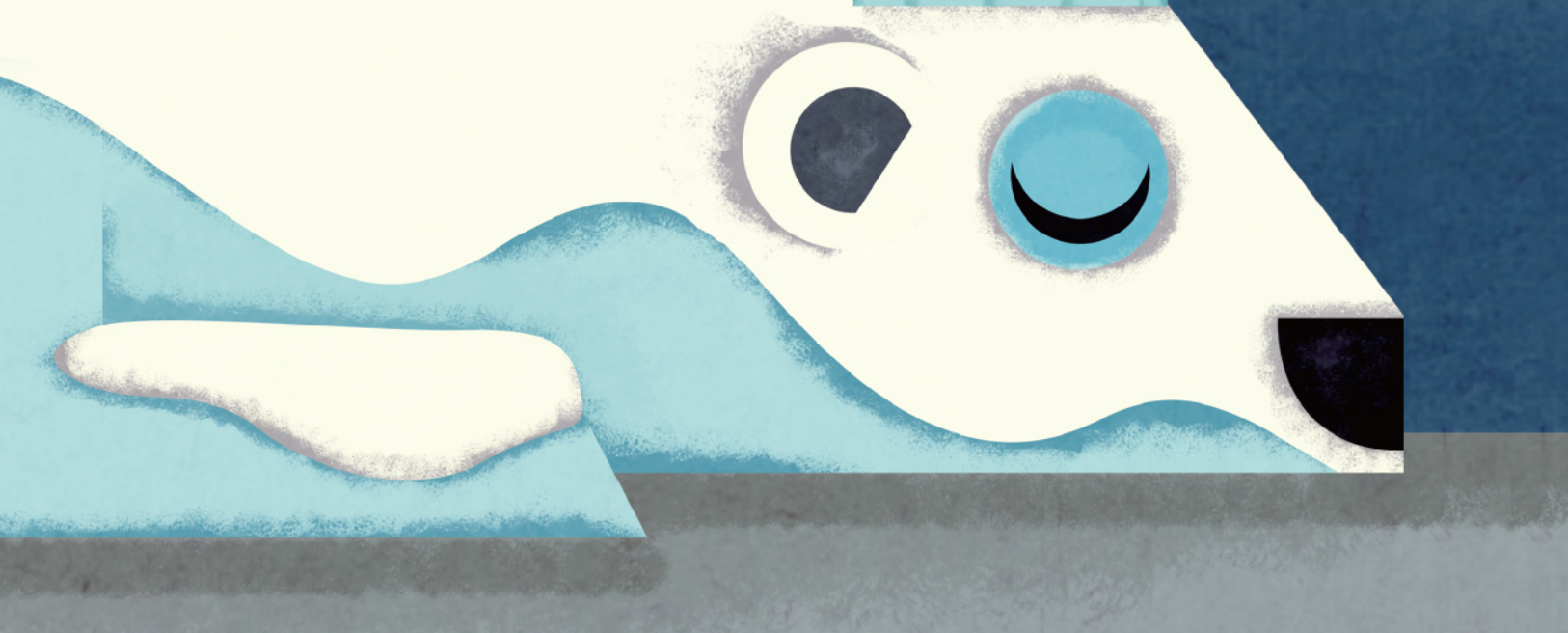


MAGAZIN Vol. 06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난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 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6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여섯 번째
- 06 튜터링 체험기
- 08 심리부검
- 09 공황장애
- 10 차기 회장, 부회장 인터뷰
- 12 심리학과 학술제 참가자 이야기
- 14 Healing의 심리학 여섯 번째 이야기
- 16 영화를 소개합니다
- 18 임기를 마치며...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여섯번째

9월 4일 개강총회



설레는 2학기 시작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학기동안 사용된 학생회비 공개와 2학기 행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5학번 손지영

개총을 통해 수업시간 말고는 모일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특히나 과 여자 친구들은 모이고 싶어도 자리를 마련하기가 힘들었는데, 개총을 기회로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총에 참여하고 나니 2학기 시작을 잘 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ㅎㅎ

11월 1일 문창체전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회대 7개 과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체전을 진행했습니다. 체전은 심리학과와 사회학과의 축구 결승과 작은 미니게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축구 결승은 아쉽게도 2:0으로 졌지만 여자종목 카드뮴집기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의 날씬 손놀림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날 조교 선생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뒷풀이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더욱 즐겁고 신나는 체전이었어요!



15학번 김미진

체전 경기 중 많은 데에 참여했는데, 저는 특히 카드뮴집기가 기억에 남아요! 너무 전투적으로 임해서 다른 과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우승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과 사람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고, 특히 저랑 매 경기 함께한 예진선배, 은준선배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15학번 남순원

저는 이번에 피닉스 주장으로서 문창체전 축구부분에 참석 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결승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쉽게 결승에서 저서 준우승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과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즐겁게 축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심리학과와의 문창체전 참여가 사회대에서 가장 저조했던 것입니다. 다음 체전 때는 많은 학우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즐겁게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 항상 화이팅입니다!

11월 2일 문창제 가요제

사회대 잔디밭에서 열린 사회대 노래꾼을 뽑은 자리인 문창제 가요제!! 올해도 만만치 않는 실력파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심리학과에서는 15학번 김미진양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소울 넘치는 <Listen>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무대로 각 과 1학년 총대, 부총대들이 <심쿵해>를 주었는데요. 심리학과 1학년 총대 구경모군의 요염함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가요제 마무리는 신나는 해도비 공연으로 한 층 더 흥겨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15학번 구경모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관객도 많고 열기가 넘쳤던 문창가요제!! 15학번 김미진 친구의 열창과 각 과 총대 부총대들의 특별공연을 통해 저도 무대에 올라감으로써 열기를 더 뜨겁게 느낄 수 있어서 최고!! 하지만 우리 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군요ㅠㅠ 내년엔 더 많이 참여 합시다~~

11월 23~24일 차기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선출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어 투표를 해주신 덕분에! 2016학년도 심리학과를 이끌어 갈 차기 학생회장 13학번 정은주, 부 학생회장 14학번 최숙정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포스터부터 아주 남달랐던 후보들이었는데,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11월 27일 학술제

작년에 취소되었던 학술제가 올해 다시 제 3회 심리학과 학술제로 열렸습니다. 창의적인 연구 주제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연구들을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멋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애정 어린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심리학과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3학번 김소라

좋은 기회로 학술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얻은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뭐든지 하지 않는 것보단 서툴러도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고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12월 2일 부산대학교 교육자상 시상식

신현정 교수님께서 부산대학교 교육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대학원 선배들 그리고 학부생 대표가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튜터링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3학번 장세영입니다.

이번 화는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효원튜터링' 및 '신입생튜터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튜터링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선-후배 간 학습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후배는 '튜티'로서 수강하고 있는 전공 수업 중 하나를 선배인 '튜터'에게 교습을 받습니다.

선배인 '튜터'는 후배 '튜티'를 가르치면서 주어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소정의 활동비와 30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봉사활동 인증서, 1학점을 부여받습니다. 튜터링 활동은 튜터는 1명, 튜티는 3명까지 한 팀으로 이루어지며, 1:1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효원튜터링'과 '신입생 튜터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신입생 튜터링'은 튜티 중에 1학년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활동비가 조금 더 많이 수여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행한 튜터링 프로그램은 '신입생튜터링'이었습니다. 1학년이었던 한 후배와 현재 연구설계및심리통계(Ⅰ)로 명칭이 바뀐 기초심리통계를 공부하였습니다. 매주 1회 2~3시간씩 튜티에게 통계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학기에 수강하고 있었던 심리통계[現연구설계및심리통계(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연구설계및심리통계(Ⅱ)로 '효원튜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2학기에 걸쳐 진행한 결과, 제 튜티는 두 과목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복습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번 학기에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13학번 김소라 학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장세영입니다.

김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김소라예요~

장 현재 튜터로서 튜터링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저는 동기인 13학번 정은주 학우, 후배인 15학번 구경모 학우에게 연구설계및심리통계(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튜터링은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가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두 학우에게 통계과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군요.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김 튜티들이 미리 책을 읽어 오고, 저는 교과서 정리노트를 만들어가서 함께 공부합니다. 튜티들이 대체로 잘 이해해 주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고 함께 공부합니다.

장 역시 그룹과의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경험이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김 네, 당연하죠. 튜티들이 수업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참 뿌듯했습니다. 반면 어려웠던 경험은 도무지 말로 개념을 설명해 주기 어려울 때입니다. 제 한계를 느낄 때가 몇 차례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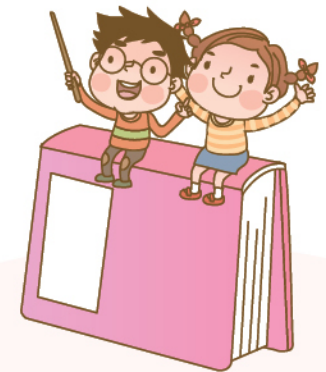
장 가르치는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고충이네요. 튜터링을 3개월가량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것 같네요. 그 간 달라진 점이나 가르치면서 새로이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김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어보니 가르침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튜터링을 하면서 튜티들과 많이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장 혹시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 마디 있으신가요?

김 부자되게 해주세요!~♡♡♡

장 하하. 튜터링 활동비로 부자가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면서 함께 전공지식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알고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 초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이 공지사항에 올라오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

심리부검,


죽겠다는 의지는 살려달라는 호소의 다른 면일 수 있다.

이현두 기자 zseungjunz@naver.com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3천836명으로 하루에 37.9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은 단지 통계의 수치가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심리적 부검'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가족과 주변인을 만나 면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어 고인의 유서나 일기 등 남은 기록과 경찰의 수사 기록,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고 검시관의 진술 등을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모은 결과는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지난 4월 정부 차원의 심리부검 전문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문을 열었다.

자살자의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센터 홈페이지(www.psyauto.or.kr)나 전화(02-555-1095)를 통해 심리부검 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사망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병원기록)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26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연구진은 국내외 심리부검 도구 및 자살 관련 문헌, 자살 관련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총망라한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K-PAC 2.0)를 개발하였다. K-PAC 2.0의 면담항목은 유가족 영역, 대상자(고인)영역, 면담원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면담원 평가는 급성자살위험요인 평가(* IS PATH WARM)를 활용한다.



정신분석학자 Edwin S. Shneidman(1918-2009)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심리학자 Edwin S. Shneidman은 자살 사망자 유가족을 인터뷰 할 때, 면담자가 고인의 삶에 대한 방식을 재구성해야 하고,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순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심리부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인의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하여 높은 가능성을 지닌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부검의 과정에서 주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의학 병력, 평소 성격특성과 행동적 특성, 사망 전 상황 및 정신의학적 진단과 자살 전 경고 신호 등이 포함된다.

IS PATH WARM

(Juhnke et al., 2007;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2011)

Suicide Ideation

- 직접적으로 자살 사고를 보고하거나 자신의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글로 씀

- Substance Abuse •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함

- Purposelessness •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상실함

- Anxiety •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함

- Trapped •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Hopelessness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

- Withdrawal • 친밀했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원해짐

- Anger • 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함

Recklessness

-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 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이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위험한 활동을 함

Mood Change

- 극적으로 기분 상태가 변하거나 감정이 심하게 요동침

숨이 멎고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게 겨우 '불안'이라고요?



김하경 기자 sky_9261@naver.com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많은 긴장과 걱정 등을 우리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대개는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잠이 오지 않고,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까지 극도의 긴장으로 오히려 수행수준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한 걱정은 말도 못하죠. 대부분의 불안 증상은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보통의 불안은 사건이 지나가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형돈, 이경규 등 연예인들의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보니, 삶 자체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공황발작'은 평생 3-10%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공황장애'는 유병률이 3% 내외로 추정되지만 아마 점점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 의학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0%가 이 장애를 겪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공황발작'과 '공황장애'의 DSM-5 진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다!

공황발작은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 모두에서 언제 어느 때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체적, 인지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을 자다가도,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새카만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뒤틀리게 되며', 그 상태가 10분 내에 '죽을 것 같은'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 상태가 점점 약화되기는 하지만 20-30분간 지속됩니다. 발작의 13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증상의 심각도와 빈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난 뒤, 한 달 이상 "공황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쩌지? 내가 죽거나 미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걱정을 계속 하거나,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환경이나 행동을 회피하면서 부적응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황발작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환경, 혹은 발작을 일으켰던 장소 등과 관련된 '예상할 수 있는' 발작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발작 모두를 포함하지만, 진단에는 '예기치 못한' 발작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호소하는 증상도 다르고 심각도도 다르지요. 사회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학업과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작의 순간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하는 걱정엔 나중에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광장공포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장애라는 선입견 때문에 진료방기를 거부하는 불안장애. 하지만 한 번 이런 발작에 대한 정서조건형성이 되고나면 그 공포가 강력해서, 치료가 쉽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가 알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D

인터뷰



차기 회장,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1월 24, 25일 학생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 부회장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내년 심리학과를 위해 힘써 주실 13학번 정은주, 14학번 최숙정 두 사람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차기 회장 13학번 정은주



차기 부회장 14학번 최숙정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당찬 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빼약효과가 심리학과에 태풍을 불러일으킬길 기대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심리학과 학우분들의 많은 응원바랍니다.



먼저, 차기 회장, 부회장님 서로에 대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차기 회장은 우선 빼약이로 유명하고, 장점이 많아요. 일처리로 아무지고, 자신의 단점이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직설적이거나 드센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조심하고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은주가 대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멋있었어요. 은주는 사회대 학생회도 했고 동아리장도 했는데 다들 대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다 하기 벅차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그 외에도 꾸준히 잘 하고 잘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친구예요.



숙정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본인은 다른 사람을 잘 못 챙기고 타인과 가까워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회장을 잘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자랑 생각이 많아있어서 저와 잘 어울려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참 예뻐요.



그러면 두 분, 어떻게 출마할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전에도 사실 출마해보라는 말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 같이 해 볼 친구를 정하지도 못했어요. 막상 하면 잘 못할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담도 되었고, 그렇게 미루다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안 하면 영영 못해보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안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숙정이었어요. 숙정이가 워낙 엄마같이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역센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숙정이보고 밥 먹자고 불렀어요. 불려서 밥 먹는데 30분쯤 고민하다가 '같이해볼래?' 툭 던졌더니 굉장히 반갑게 좋다고 해줬어요. 자기한테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숙정이가 흔쾌히 수락해줘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보니 다들 예쁘게 봐주셨는지 당선이 되었네요.



저는 부회장 생각이 없었고 은주에게 제의를 받고 결정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린 결정이긴 했지만,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변화의 시점에서 변화를 선택했을 때 경험이 정말 많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변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생각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좀 겁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제가 학생회도 했지만 학교 바깥의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학과행사도 꼬박 꼬박 오려고 노력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학과행사도 계속 못 오면서 바깥의 일들에 참여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과행사도 참여하고 학생회 활동도 해봤지만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만족도 못 했고, 그러면 이참에 심리학과에 애정도 있는데 부회장을 해보는 게 하나의 실천방법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심리학과에서 걸도는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꼭 빠져보고 싶었어요. 은주가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물론 못했겠죠.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과에서 바꿔보고 싶은 게 많아요. 심리학과에 와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간다게임을 하면서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그 선배 앞에서 미션 벌칙으로 작두타는 흉내를 냈어요. 작두타는 흉내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마음 속으로는 싫었거든요. 그래도 동기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하기는 싫었어요. 그 이후에 선배들이 장난이었고 원래 안 그런데 놀려주느라 심하게 굴었다고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날 뒤풀이에서 선배들 끼리, 후배들끼리 나눠서 놀았거든요. 거기다 그 선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간다게임에서 다시 그 선배를 만났는데 저에게 '작두타던 애네,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1년 만에 본 그 선배는 저를 작두타는 애로 기억한 거였죠. 전 그 선배가 '간다게임에 후배 놀리러 오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든 생각이 간다게임이 학과에 대한 첫인상이 될 텐데 첫인상이 다소 안 좋게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전 이런 걸 바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회가 스펙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학생회가 학교에서 챙겨갈 수 있는 하나의 스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행사를 기획한 기록들도 체계적으로 남겨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해봤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스펙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학생회에서 행사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이 있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학생회에서 피드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학생회가 어떤 행사에서 했던 방법을 인수인계받고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보면 작년에 발생한 문제가 올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내부에서 서로 피드백을 해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사회대 학생회를 할 때 서로 피드백이 활발했던 게 참 좋았는데 그 기억에서 출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즐거운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요. 막 학생회 친구들이 신나서 회의를 하는 그런 학생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희 둘이 얘기하면 굉장히 신나거든요. 신나서 얘기를 던지다보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학생회 회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신나서 의견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과방청소가 잘 안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방은 같이 쓰는데, 그 중에서 주 사용자는 1, 2학년인데 1학년 친구들을 몇 조로 나누고 학생회 친구들이 조장이 되어서 돌아가며 청소하면 어떨까 해요. 과방에 조장번호를 뒤편에 과방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과만의 공간이잖아요. 우리 방.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학생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빼약효과요.



빼약효과가 나비효과같은 뜻인데 저희의 날갯짓이 심리학과의 태풍이 될 거예요.



2015 제 3회 심리학과 학술제, 참가자들의 이야기

강호진 기자 rkdghwls_8@naver.com

11월 27일 심리학과에서 학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심리 학술제는 심리학과 학부생 및 복수전공생들이 2~5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심리학 전공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갖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2012년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 공모에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쉽게 학술제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해 참가한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술제 참가

학술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되어 약 한 달 전부터 주제를 공모받습니다.

주제는 심리학 전공과 관련된 경험적 data를 갖춘 연구로, 심리학과 학부생이나 복수전공생 2~5명이 1팀을 구성하여 발표합니다.

학술제가 공지되면 주제와 팀원을 정해서 학과사무실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심리학에 대해 연구하여 조언을 듣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내외집단에 따른 피해자 폄하 차이 (오호준, 권소영, 장세영)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과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를 폄하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를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부산대와 경북대 학생으로 각각 설정하였고, 사건의 심각성은 피해 금액의 차이로 구분하였습니다.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한 경우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을 평가할 때 내집단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외집단의 경우 사건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 책임을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내집단에게는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 심각하지 않은 사건에 비해 책임을 낮게 응답하였고, 외집단에게는 심각한 정도가 큰 경우에 책임을 크게 평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내집단 피해자의 경우에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몰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것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하여 불편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외집단인 경우 참가자는 가해자에게 충분히 귀인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범죄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에게 귀인하여 피해자 비난이 줄어들고 범죄사건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 비난의 정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범죄사건이 아닌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세영 학생은 학과 행사인 학술제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흥미 있는 주제를 직접 연구해보고 발표를 통해 피드백 받는 경험이 유익하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주로 피드백 받은 것에 비해, 학술제를 준비하면서는 연구내용 자체나 통계기법에 대해 많이 공부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02 남녀 신체에 따른 지각 차이 (김예원, 박소라, 오현지)

남녀 신체에 따른 지각 차이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거식증 등의 체중 조절과 관련한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더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의 비만을 차이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월등히 큰 만큼 본 연구가 본 연구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주로 자신의 신체 지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넘어서 타인의 신체 지각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에 남성 혹은 여성의 신체가 주어지는데, 낮은 BMI(신체질량지수)의 체형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BMI의 체형으로 순차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때 참가자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체형이 제시되는 순간에 키보드를 눌러서 뚱뚱함에 관한 절대역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더 낮은 BMI의 체형에서 뚱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BMI에서 여성을 더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것인데, 여성에게 뚱뚱함에 대해 더 엄격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요인을 추가하였다면 연구의 심리학적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동성과 이성의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네 집단에 대한 비교를 했어도 의미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만큼 다시 참가하여 내년 학술제를 빛낼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다른 학우분들에게도 학술제 참가를 권하였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조언을 듣는 경험이 노력한 것이 아쉽지 않을 만큼 값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제 참가가 저조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학술제를 진행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03 온도에 의해 체화된 인지가 범죄 처벌의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박성진, 박서정, 박세훈, 정연목, 조형민)

법정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것,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범죄 처벌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 중에 온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존바그의 실험 중 커피잔의 온도에 따라 타인을 평가할 때 따뜻하거나 차가운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기존 연구에서 설계를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독립변인인 온도를 처치하기 위해, 책상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대기 중인 참가자들에게 차갑거나 따뜻한 커피를 주어 컵을 들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실험실에서 설문지를 통해 범죄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게 하였는데, 이 때 참가자들에게는 대학생의 범죄 인식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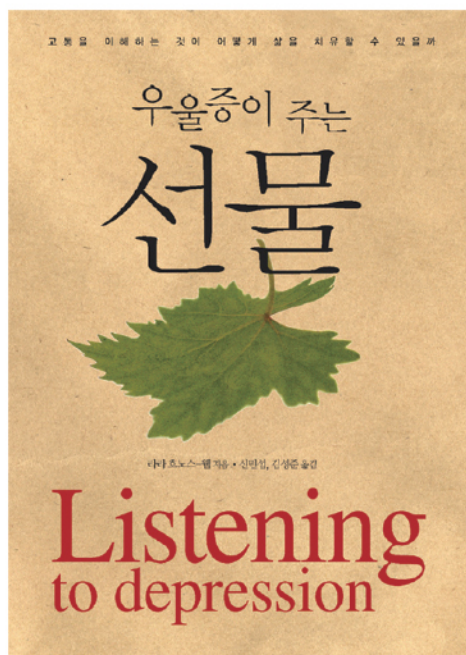
결과는 아쉽게도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범죄 상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제시한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하였는데, 책임 요소가 큰 경우에 처벌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습니다. 가령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는 것은 업무라는 큰 책임에 대한 실수인 만큼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연목 학생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우분들이 학술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쉽다며, 참가하지 않더라도 학술제를 보러 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과에서도 참가자 모집과 실험실 사용에 관련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교수님들에게 학술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가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Healing의 심리학 여섯 번째 이야기

우울증이 주는 선물

라라 호노스-웹 지음 / 신민섭, 김성준 옮김 / 시그마프레스



먼저,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알아봅시다. 심리학 분야에서 우울증은 심한 기능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기분장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자신이 망가졌거나 손상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우울증은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 중 하나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울증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할 정도로 흥미를 잃는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증상 중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

1. 예기치 못했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나 증가
2. 불면이나 수면 과다
3. 느린 움직임 또는 안절부절못하고 동요하는 행동
4. 거의 매일 겪는 활력 상실과 피로감
5. 무가치함과 부적절한 죄책감
6. 집중력 저하.
7. 죽음과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여러분들은 **"선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생일, 크리스마스, 설렘, 기쁨, 행복,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우울증"**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피로, 무기력, 무가치한 느낌, 불행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선물과 우울증, 이 두 가지 단어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울증이 선물을 준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우울증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일까요?

이처럼 우울증은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체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울증이 없는 척하거나 감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막고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어쩌서라라 호노스-웹 박사는 우울증이 선물을 준다고 표현했을까요? 박사는 우울증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aylor et al.(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힘겨운 생활환경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신념은 그것이 설사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더라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눈에 띄게 건강상의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가치 있다고 보는 신념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적일 것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각 장의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인생의 전환점이며, 삶을 재조정하며,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또, 우울증은 내면적 변혁이며, 슬픔과 상실을 되찾아주고, 공허감을 받아들이게 하며, 허용 범위를 넓혀주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더욱 더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장의 끝에 연습문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어떤 일에 대해 떠오르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모두

적어보고, 그 비합리적 사고들을 논박하면서 합리적인 신념과 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인지치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논박의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우울증을 헤치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울증을 삶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우울증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치유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며...



15 심리학과 학생회장 박성진

이제 임기를 마치는
2015학년도 심리학과 학생회장 11학번 박성진입니다.

학생회장을 시작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2015년은 참 빨리
지나갔네요. 지난 한 해는 그 동안의 어떤 한 해보다도 빨리
지나갔고 저에게 가장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부회장 예진이와 학생회 친구들,
더 좋은 회장이 되지못해 미안했고 그간의 고생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 표를 던져주셔서 학생회장이라
는 자리의 기회를 주신 심리학과와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저와 함께한 1년이 더 나은 심리학과와 밀거름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들 2015년은 재미나게 마무리하시고
2016년을 신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Cheers!

15 심리학과 부 학생회장 김예진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심리학과 부 학생회장 13학번 김예진입니다.

벌써 2015년이 끝이라니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네요.
작년 이맘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출마하였습니다.
한 학과의 대표자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고 커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
습니다. 수없는 고민 끝에 출마를 하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셔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특히 회장 성진선배와 학생회 친구, 제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
어서 그 동안의 행사들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한 이 한 해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심리학과 사랑해요♥

2016 1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본 행사 이외에도 추가되는 학과행사나 일정들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신입생 오리
간다게임

3월 신입생 복학생
환영MT

5월 대동제 주말

6월 농활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상담심리전공
이현두

임상심리전공
김하경

10학번
이진우

11학번
강호진

11학번
박성진

13학번
김예진

13학번
장세영

13학번
김나희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6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스토리를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MAGAZIN Vol. 06
프로이체 Story

발행일 2015. 12. 14.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영화를 소개합니다



몽상가들 (The Dreamers, 2003)

드라마 | 2005. 03. 25 개봉 | 114분 |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 청소년 관람불가 | 감독_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물론 야하긴 하다! 하지만 야하기만 한 영화는 절대 아니다!

이진우 기자 jinwooggu@naver.com



“이 영화를 아냐”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다” 말하며 “그거 되게 야하잖아”를 덧붙인다. 그렇다. 굉장하다. 야한 영화의 대명사 같은 영화다. “이 영화를 봤다”고 차마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터다. 노출의 강도라면 한국영화는 이번 밀레니엄 안에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젊은 세 남녀의 파격적인 노출, 게다가 예바 그린이라니(물론 남자주인공들도 훌륭). 눈으로 카메라앵글만 따라다녀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참,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학을 배운 학생들.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선 안 된다. 혹 압도적인 비주얼적 매력에 취해 영화를 겉으로만 본 사람이 있다면, 주요 부분만 돌려보곤 했던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심리학의 안경으로 이 영화를 보도록 하자. 솔로라면 크리스마스가 좋겠다.

여기 필자의 시선으로 [몽상가들]에 사회심리학의 용어를 대입해보았다. 몇 가지 장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영화의 시나리오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다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린다.



배경

영화는 프랑스 68혁명 시절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인 매튜는 프랑스 유학 중 영화에 미쳐 매일 같이 시네마를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 프랑스인 쌍둥이 테오와 이사벨을 만난다. 둘의 부모님이 한 달간 집을 비우게 되어 매튜를 집에 초대해 당분간 함께 살자는 제의를 한다.

준거집단과 동조

그들에게 있어 준거집단은 다음 아님 영화다. 영화라는 장르 그 자체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기준과 관심사를 모두 영화에 맞추고, 자신들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자 한다.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자신들의 삶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탄압을 피해 스스로 영화가 되려 한다. 즉 세 명에게 있어 준거집단은 영화라는 매체다.

매튜가 말한다.
“둘을 처음 봤을 때 멋지다고 생각했어. 배우 같았거든.”

그에 이사벨의 대답
“배우 맞아. 멋진 연기를 한 거지.”

멋지다고 생각한 둘 사이에 끼게 된 매튜는 매우 기쁘다. 그러나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쌍둥이라는 둘의 사이가 매우 남달라 보이는 것이다. 맨 몸이 된 채로 함께 잠을 자고, 샤워를 같이 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둘은 그들 스스로가 삼쌍둥이라 말한다. 몸은 둘이지만 머리는 하나라고, 이를 납득할 수 없지만 매튜 역시 그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도가 지나친 벌칙을 수행하기까지 한다. 그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튜가 곧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개인으로서 적응하고부터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비누거품을 카메라처럼 만들어 둘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는 매튜

영화라고 말하며 영화에 대한 탄압을 경멸하면서 정작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그들에게서 모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지부조화

테오는 시인인 아버지를 싫어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시, 탄원서는 시다. 시는 탄원서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정작 베트남 전쟁에의 반대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질타한다. 시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집을 비운 한 달 동안, 테오와 이사벨, 매튜는 셋만의 세상에서 산다. 그 한 달 동안, 파리는 시위로 인해 초토화되고 마침내 영화와 무관했던 학생과 시민들까지 동참한다. 그들 셋은 영화가 전부라 말하고 영화에 대한 탄압에 치를 떨면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어느덧 관찰자가 된 매튜가 말한다.

“넌 나와 여기 있어, 비싼 와인에 영화를 말하며, ... 사실 너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잖아.”

자신의 모순을 들키고만 순간 인지부조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아버지처럼 불의를 그저 방관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고 해놓고,



넌 나와 여기 있어 비싼 와인에 영화를 말하며

그 역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다고 꿈처럼만 믿었다. 꿈속에서 자신들이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시위대가 집 유리창을 깨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셋은 우발적으로 시위대의 행렬에 합류한다.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에 실망한 매튜는 시위대가 파시스트와 다를 것이 없다며 방향을 돌리지만, 테오는 전선으로 나아가 가장 과격한 시위의 모습을 보인다. 그 간 시위 한 번 참여해본 적 없던 테오가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영화가 끝이 난다.

이는 그 동안 스스로 혁명론자라 여겼던 것에 반해 자신이 혁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탄압에 대한 반항적 태도에 마침내 행동을 일지시킨 것이다.

집단 속의 개인

위의 이야기는 또한, 집단 속에서 개인의 몰개성화를 보여주는데, 테오 혼자만 있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을 수많은 시위대의 틈에 끼어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대에 동화되다 보니 과격한 행동까지 보이게 된 것이다. 테오가 화염병을 던지기 전까지 시위대와 진압대는 대치상황이었고 시위대는 단지 위협용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는데, 테오는 진압대를 향해 직접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만다.



거리로 나가자 거리로 나가자